

# 제1회 만해축전 '님의 침묵' 세계로 미래로

## 만해스님 탄생 120주년 설악산 백담사에서 13~16일 열려

만해 한용운스님(1879~1944)의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는 제1회 만해축전(님의 침묵 <불교유신론> <불교대전> 등을 집필해 '만해학의 고향'이라 일컫는 설악산 백담사에서 8·15를 기해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만해사상실천선양회(회장 명호근), 강원도, 조선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만해축전(대회장 고은·미국 하버드대 교환교수)에는 백담사 회주 오연섭님을 비롯 조병화·고은·신달자·유안진·이기림 시인, 소설가 조세희씨 등 국내문인들과 세계적 불교학자 루이스 랭카스터(미 버클리대) 엘리자베스 앙드레(프랑스 툴루즈대) 한국학자 데이비드 맥킨(미 하버드대)박사 등 6개국 외국학자와 참관인 등 연인원 1천여명이 참석해 국제적인 축제로 진행됐다. 특히 일반인 대상의 제

4회 만해시인학교에는 170여명의 참석자가 몰렸다.

13일 만해시인학교 입학식에 이어 14일 열린 만해축전 개막식에서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총재 고산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법어를 통해 "만해축전이 새로운 세기를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앞서 대회장 고은시인은 대회사에서 "만해의 '전인'의 삶은 이원론적 세계를 극복하는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해축전의 핵심은 '만해문학의 세계적 인식'이란 주제로 15일~16일까지 열린 만해학 국제학술회의와 14일 열린 '20세기 한국 현대사의 반성과 전망'이란 주제의 한국학술회의였다. 심포지움에서 기조강연을 한 서울대 김용직교수는 "일제하 시의 형이상적 불모현상으로 50년대에 접어들기까지 가뭄의 감정표현의 단계에 머물렀을지도 모를 현실에 만해스님은 우



◇제1회 만해축전이 설악산 백담사에서 13일~16일까지 열렸다. 사진은 개막식 모습.

리 시의 이런 비탄을 메워나갔다"고 주장했다. 이번 만해축전에서는 대표적인 작품 '님의 침묵'이 김말애교수(경희대)가 한국무용으로 창작해 백담사 야외무대에서 발표했고, 작곡가 이진구씨가 창작 합창곡으로 만들어 개막식때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만해문학의 밤, 고은시인의 '만해 누구인가' 특강, 작가와의 대화, 님의 침묵 퍼포먼스, 광복절 기념식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위영란·김준근 기자 (yryul@buddhapia.com)

### 제3회 한민족철학자대회 '한민족과 2천년대의 철학'

'한민족과 2000년대의 철학'을 주제로 한 제3회 한민족철학자대회가 17일부터 19일까지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분석철학, 과학철학, 해석학 등 12개 학회와 6개의 주제분과, 5개의 자유분과 등으로 나눠 논문이 발표됐다. 이 가운데 열람 박종홍 선생과 뇌허 김동화 박사의 불교학연구방법론에 대한 비교연구를 비롯해 물리철학과 심리철학에서 제기되는 인과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불교적 인과와 연기사상에서 찾고 있는 논문 등이 눈길을 끈다.

### "특색찾기·내적경험 배제 잘못"

◇열람 박종홍과 뇌허 김동화의 불교학 연구 비판: 불교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조성택 교수(뉴욕주립대): 박종홍은 현대 한국 철학의 제1세대로서 전통사상에 머물렀던 불교 유학 통학 사상을 철학적 관점에서 정리한 것은 그의 공적이다. 박종홍은 한국사상을 '한국의 특색있는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불교사상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의 불교사상과는 다른 특색을 찾는 것이 곧 한국 불교학의 과제이고 나아가 한국철학의 과제라고 생각했다. 특색 찾기를 한국 사상 연구의 중요 목적으로 삼은 박종홍의 태도는 생각과 통학 사상을 연구하는 많은 동서양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태도이다. 지역적 특색을 주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불교학을 인문학이 아닌 지역학적 연구로 시작한 서양 학자들의 문제의식이다.

김동화의 불교학 연구 출발점은 근대이후의 일본 불교학계의 불교학에 대한 태도이다. 김동화는 저서 <불교학개론>에서 불교학의 분야를 종교적 철학적 윤리적 연구의 세 분야로 나누어 불교의 철학적 연구에서 해탈론 등의 실천 이론들을 제외시키고 있다. 불교를 철학적으로 접근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오류가 바로 '수행'이나 '깨달음' 등 내적 경험을 배제하려는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의 근본에는 서양 철학적 개념의 철학만을 철학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다. 불교의 철학적 사상 체계는 결국 수행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는 실재와 인식의 단계에 관한 것이라 해도 좋다. 또 김동화가 주장하듯이 불교의 진리는 객관적 철학적 진리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불교의 진리는 주객합일(主客合一)의 진리로서 수행의 정진인 깨달음의 경험에서 획득되는 것이기에 객관적일 수 없다. 불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불교 텍스트가 깨달음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며, 거기에는 이성에 의한 일상적 체험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실재에 대한 경험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홍분된다. ▲테레사 현(캐나다 요크대 교수): 만해로 인해 한국 현대사는 그 속에 미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만해와 타골의 비교문화적인 연구가 통해 만해가 타골을 수용하면서도 독자적으로 극복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타골의 시정신과 김억이라는 창조적인 번역인을 통해 새로운 시형식의 영향 아래 창조된 한국 근대문학사의 최대 열매로 해석될 수 있다.

▲권영민(서울대 교수): 만해의 소설은 도덕적 정신적 절대성의 언어로 구현된 세계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설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의 소설은 신성성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정신적인 것의 의미를 극대화하려는 기적으로 볼 수 있다. 만해의 소설은 물론 성공적인 소설 양식으로 자리하고 있지 않다. 그는 현존하는 현실로서의 삶보다는 그가 대망하는 약속으로서의 미래에 관심을 두고 있다. 김준근 기자(gamja@buddhapia.com)

### "존재론 대신 법계론 연구"

◇인과와 연기-현남규·양영웅 교수(제주대 물리학과·철학과): 불교의 연기는 '연이어 일어남'과 '함께 일어남'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12연기에서는 물질적인 것과 심적인 것도 함께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양면성은 심리철학의 심적 인과 논의에 있어 참고가 된다.

불교의 육계설에서 식계는 순수한 심적 작용 또는 실적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적 작용과 함께하는 물질적 존재를 지칭하고 있는 술어로 볼 수 있고 이것으로 물질의 불가분리를 강조할 수 있다. 부처님이 존재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법'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우리의 외부 세계는 존재의 세계가 아니라 '법계'라는 사실의 자각에 기인한다. 불교의 '연기설'에서 심리철학에서의 심적 존재를 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존재'보다는 '법계'의 개념으로 언급되고 있으므로, 심리철학의 '존재론'적인 문제를 '법계론'적인 문제로 방향을 전환시켜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부처님이 쉬운 오운설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려운 연기설에 이르기까지 45년을 계속 설법하시는 과정에서 '존재' 대신에 '법계'라는 개념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심신이 동일한가 다른가와 같은 심리철학에서의 '존재론'적 문제를 불교철학에서의 '법계론'적 문제로 방향을 바꾸어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해준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 "만해사상은 21세기의 가치 덕목" "만해학으로서의 연구가치 충분"

### 국제학술회의 '만해문학의 세계적 인식'



◇인권연구소



◇한계전교수



◇랭카스터교수



◇앙드레교수

만해스님의 생명사상과 자유·평등사상, 민족·민중사상, 진보·통일사상 그리고 평화의 철학이야말로 21세기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적으로 실현해 나아가야 할 가치덕목이란 관점이 학술회에 참여한 발표자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이와관련 만해스님의 시와 사상이 인도 시인 타골을 능가한다는 점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며 세계적인 조명이 과제로 부각됐다. 각 발표자들의 요지를 정리한다. <편집자 주>

▲인권연구소(고려대 교수): 만해학 성립은 가능한가. 수많은 시를 비롯 소설·수필·기행문·일기 등을 남긴 문화자이다. 이론과 행동을 겸비한 독립운동가 및 불굴의 지사였다. 이와같은 점은 사후 55년간 400여 편에 이르는 국내외의 저서와 논문 그리고 연구에 참여한 200여명에 의해 이미 검증됐다. <님의 침묵>의 경우 전세계에 소개됐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만해학 성립 조건은 충분하다. 하지만 연구서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관심은 많으나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드물다는 증거

다. 만해학의 기반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성해야 할 과제다.

▲루이스 랭카스터(미국 버클리대 교수): 만해스님은 조선불교 전통의 산물이자 새시대 현대사의 산물이다. 만해는 당시 불교를 새시대 대와 미래에 충성치 못하다고 생각했다. 만해스님은 여행을 통해 다양한 사회상황을 체험했고 여러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불교문헌들을 연구했다. 만해스님의 작품이 전통적 불교영어로 가득하지는 않지만 만해는 불교 안에서 이해를 찾았다. 만해의 글귀들로부터 중생의 평등성 불성공유 등 그분의 불교적 철학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계전(서울대 교수): 비록 만해의 실재기에 관한 자료가 빈약하더라도 그가 살았던 시대와 지관 환경을 재구성해 사상의 뿌리를 캐낼 필요가 있다. 18세(1896년) 고향인 홍주에서 일어난 의병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기나긴 항일운동을 시작한 만해는 한국의 성리학 즉 호학이 크게 발달한 홍주지방 지식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된다. 오늘날 만해의 불교사상이 '유가불교'라고 일컬어지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엘리자베스 앙드레(프랑스 툴루즈대 교수): 만해는 비록 정치적 참여에 대한 초연함, 전통사회의 성격성에 반대하는 투쟁, 종교적 깨달음의 성취, 그리고 자연에 대한 깊은 관조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틀에서 벗어난 비정형적인 시인이다. 만해의 종교적 성취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 만해를 신성한 재원을 깨달은 위대한 종교의 절대적 숭배자 중 하나의 모델로서 세계적인 인물로 만드는 생생한 체험을 갖게하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맥킨(미국 하버드대 교수): 다른 시집이나 운문 연작과는 달리 만해의 <님의 침묵>은 많은 목소리로 말한다. 민족적 종교적 서정적 혹은 기타 표현들로 된 여러 다른 영역에서도 들려온다. 복합적이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질문하는 소설의 언어를 소설 스타일의 독특한 특징으로서 묘사하기 위해서 '다성 언어'라는 용어를 발전시키는 것이 시인으로서 만해의 업적을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방법같아 보인다.

▲이민나(체코 만해연구가): 체코는 한용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 '나뭇배와 행인' 등이 체코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시다. 한용운은 전통 한국 시로부터 많은 모티브(동기)를 빌려왔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불교적인 직관에 의해 깊이 영향받은 것으로 그의 자유를 사랑하는 상상력에 따라 다뤄진다. 한용운의 단어는 침묵에 중점을 둔다. 매우 중요하고 흥미있고

### 만해 시인학교 백일장 장원시 백담사에 와서

안개비 오시나,  
산은 아니겠는데 마음이 짙는다.  
자갈자갈 마당위에 속삭여  
만해사 침묵을 깨우려 드니  
님은 말없고 밋소리만 흥흥하다.  
이시년 정든 님은 바람으로 여의고  
청정한 설악산 자락에 삼은 한을 풀려 했더니  
여기 무엇하러 왔는가  
백담제곡 물소리에 귀나 짓고 가라하네  
네가 예서 살려하느냐  
네가 예서 죽으려하느냐  
무덤무덤 입신하는 나무들마다  
남향한 목청소리 새처럼 앉았는데  
화랑한 눈 뜨는 부처를 보고져  
법당 앞에 서성이든 마음  
들릴세라 그만 동자꽃처럼 붉어진다.

노연화(경북 구미)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홍사 거룡 범주스님의**  
**신식 권정콩**  
**“金檀花”**

"왜 콩을 통째로 삼기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나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변보다 더 쓰더라니까!"

물나무와 소나무의 울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시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솜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점성공용 액체에 담갔다 건조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속성 기간이 죽어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울진인 한 뒤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솜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신식 권정콩은 콩이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중매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든 치료해 줄 수 있는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지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

##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 관련 전문 회사  
황토 마을 예사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월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 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 '조계사 전 주지 진현근 축'의 책임있는 자세를 추구한다.

공개합동조사를 위한 사전 협의의 시기와 방법을 '진현근 축'에서 정하기 바란다.

1. '진현근 축'은 지난 7월 28일 자신들이 제안한 공동 조사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2. 조계사에서 8월4일 공동조사 제안을 수용하여 그 시기와 방법 등을 공개 제안하였음에도 8월20일 현재까지 아무런 의사표명이 없는 이유를 '진현근 축'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3. 만일 '진현근 축'에서 진심으로 합동 조사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조계사 신도와 중도들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4. 조계사는 '조계사 전 주지 진현근 형량 사건'에 대한 공개 합동 조사의 사전 협의를 위해 '진현근 축'이 그 시기와 방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5. 향후에도 '진현근 축'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자세와 의사가 없다면, 이는 그동안의 일련의 행위가 언론을 이용한 여론 호도 행위이며 '진현근 축'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과 허구를 만천하에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6. 조속한 시일 내에 '진현근 축'의 공개 조사 시기와 방법에 대한 제안이 있기를 바라며 '진현근 축'이 지난 날 공인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갖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불기 2543년 8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주지 지홍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45번지 / 전화 02)732-2183 / 전송 02)720-1391